

세계도시동향

헤드라인뉴스	1	담배꽂초 필터 재활용해 플라스틱 만든다	리옹
문화·관광	4	‘지역사회 활성화 기여’ 대학·마을 연계사업 지원	교토
산업·경제	7	베이징문화재산권 교역센터 문 열었다	베이징
	9	2015년 고온수당 월 200위안으로 책정	상하이
사회·복지	11	사회적 약자 종합 지원정책 실행	버밍엄
	14	스마트폰 앱 ‘웨이신’으로 14개 도시형 서비스 제공	상하이
	17	‘편부모 가정 독립거주 지원’ 신개념 모성센터 개설	파리
행재정·교육	19	교사 역량 강화 지원프로그램 본격 시행	뉴사우스웨일즈
도시교통	23	차세대 교통수단 ‘무인택시’ 운행 추진	싱가포르
정보·기타	26	재활용 쓰레기통 활용해 무선인터넷 무료 공급	뉴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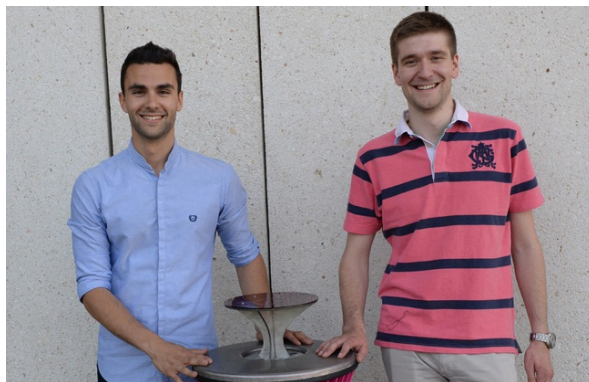


담배꽂초 필터 재활용해 플라스틱 만든다

재활용기술 상업화...공사장 보호벽, 공업제품 받침대로 생산

프랑스 리옹市 / 환경·안전

- 리옹市에서 2015년 4월 앙투안 디 토마소(Antoine Di Tommaso)와 티보 르그랑(Thibault Legrand)이 담배꽂초를 재활용 처리하는 회사인 '시-클로프(Cy-Clope)'를 최초로 설립하여 주목을 받고 있음.



프랑스 최초의 담배꽂초 재활용 처리 회사 Cy-Clope社의 공동창업자
Antoine Di Tommaso & Thibault Legrand ©Cy-Clope社

담배꽂초 1개, 물 500리터 오염시키고 썩는데 12년 걸려

- 담배꽂초는 가장 많이 버려지는 쓰레기 중 하나로, 전 세계에서 1초마다 버려지는 담배꽂초만 13만 5,000개로 추정됨. 담배꽂초 1개는 물 500L를 오염시키고 썩어서 사라지기까지 12년이 걸릴 정도로 담배에 독성 화학성분이 많아 오염 문제가 심각함.
- 담배꽂초로 발생하는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클로프社의 공동창업자는 버려지는 담배꽂초를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함.

시정부 건물에 ‘1만개까지 수집’ 가능한 궤초수거함 설치

- 시-클로프社는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대기업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담배궤초를 직접 수거함.
- 시-클로프社는 사람들이 담배궤초를 담배궤초 수거함에 버리도록 유도하는 홍보 캠페인을 시작함. 동시에 눈에 잘 띄는 빨간색 수거함을 시정부 건물 곳곳에 설치함.
- 프랑스 북부의 한 공장에서 만들어진 담배궤초 수거함 ‘시-클로퍼(Cy-Cloper)’는 1대당 1만 개의 담배궤초 수거가 가능하며 1대당 월정 임대액은 75유로(약 9만 6,200원)임.



담배궤초 수거함 ©Cy-Cloper社

- 시-클로프社는 쓰레기를 재활용하여 판매하는 사회적기업인 ‘테라사이클(Terracycle)’社와 협약을 맺었음. 수거된 담배궤초는 프랑스 남동부 로제르(Lozère)주의 수도 망드(Mende)에 있는 테라사이클社의 처리공장으로 운반됨.
- 수거된 담배궤초는 처리 과정에서 100% 재활용 처리됨. 담배궤초의 담뱃재, 남은 담뱃잎 가루, 종이는 퇴비로 만들어짐. 플라스틱의 일종인 셀룰로스 아세테이트(cellulose acetate)로 만들어진 담배 필터는 플라스틱으로 재활용하여 공사장 보호벽이나 공업용 제품 받침대로 사용됨.

- 시-클로프社 공동창업자는 담배꽁초를 수거해 재활용한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여러 곳에서 상을 받았음. 이들은 석사과정을 수료한 ‘리옹 국제 경영대학’에서 French Tech/BPI 장학금을 받고, 프랑스 전국 ‘캠퍼스 창업 경진대회’에서도 대상을 받았음.
- 시-클로프社는 리옹 국제 경영대학 내에 담배꽁초 수거함인 시-클로퍼 13대를 설치할 예정임. 리옹 지역뿐 아니라 프랑스 수도권인 일-드-프랑스(Île-de-France) 지역에서도 거대 미디어 그룹들과 담배꽁초 수거함 설치 계약을 맺음.

<http://www.20minutes.fr/lyon/1648363-20150708-lyon-megots-cigarettes-recycles-plastique>

문화·관광

‘지역사회 활성화 기여’ 대학·마을 연계사업 지원

일본 교토市 / 문화·관광

- 교토市는 2004년부터 공익재단법인 ‘대학 컨소시엄 교토’와 함께 ‘대학·마을 콜라보 사업(学まちコラボ事業)’을 실시하고 있음.
- 이 사업은 대학과 지역이 연계하여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사례를 선정하고 교토市가 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는 14개의 사례가 지원사업으로 선정됨.

2015년 14개 사업을 지원사업으로 선정… 최대 280만원 보조

- 지원대상이 되는 활동은 ① 교토의 지역과제 해결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② 2015년 교토에서 열리는 활동, ③ 대학생 그룹과 지역이 연계·협력하여 진행하는 활동(특히 학생이 주체가 되어 활동을 진행)임.
 - 지원대상이 되는 그룹은 ‘대학 컨소시엄 교토’의 회원 대학 단체 및 그룹, 대학 부서, 연구실, 세미나, 클럽, 학생 서클(여러 대학의 학생들로 구성된 동아리도 가능)임.
 - 교토시는 선정된 활동에 각각 최대 30만 엔(약 280만 원)을 지원하고, 2016년에 있을 보고회에서 최우수 사업 실시단체로 인정받은 단체를 추가로 표창할 예정임.
- 교토시는 2014년에 다음과 같은 15개의 활동을 지원하였음.
 - ‘후시미·후카쿠사 커뮤니티 아카이브(ふしみ・ふかくさ コミュニティアーカイブ)’ : 일본에서는 지역의 ‘기록’을 지적 재산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 특히 교토시의 후시미구(伏見区)는 쇼와촌(昭和村)의 삶의 모습을 기록하는 것에 관심이 많음. 류코쿠(龍谷) 대학생과 지역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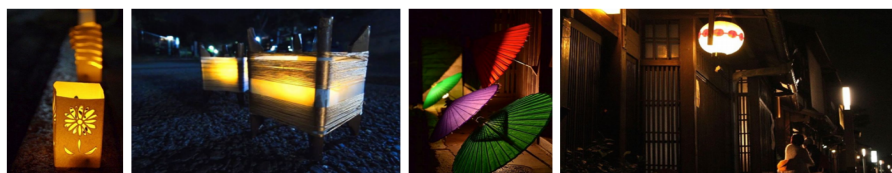
민이 주체가 되어 쇼와촌의 삶의 모습을 8밀리 필름에 담아 자료를 수집해 디지털화 작업을 거쳐 공개하였음.

- ‘아라시야마(嵐山) 아트 프로젝트’ : 교토사가예술대학(京都嵯峨芸術大学) 학생들은 교토시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아라시야마에서 역 구내 시설을 활용해 예술작품 전시회를 진행하였음. 이 프로젝트로 교토시와 아라시야마가 전통과 역사뿐 아니라 문화예술을 담은 공간임을 표현함. 회화·판화·조각·염색 등 학생들의 예술작품을 역내에 전시하여 하나의 예술공간으로 자리 잡고자 함.



아라시야마 역내에 전시된 학생들의 예술작품(왼쪽부터 전차 손잡이, 전차 내부, 역사 천장, 역내 음식점)

- ‘도시 라이트 2014(都ライト’14)’ : 도시 라이트는 지역 대학(도시샤대학(同志社大学) 외 7개 대학)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10년째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임. 상가 지역과 주택가 등에서 빛을 활용하여 각 마을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함. 관광객 및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 상가의 매력을 공유하기 위해 4개의 방향(① 방문객의 다양화, ② 새로운 지역에서의 실시, ③ 이벤트 참가 촉진, ④ 이벤트 확충)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함.



도시 라이트 2014의 다양한 야간경관

- ‘교토 목욕탕 예술제(京都銭湯芸術祭)’ : 예술가들과 리츠메이칸대학(立命館大学)·교토조형예술대학(京都造形芸術大学)·도시샤대학(同志社大学)의 학생들이 목욕탕 활성화를 목표로 교토 지역 목욕탕에서 예술제를 개최함. 각 목욕탕과

예술가, 대학생, 예술 축제 실행위원회가 상호협력하여 각 목욕탕의 특색에 맞는 작품을 만들고 목욕탕을 새롭게 단장하여 목욕탕 방문객의 증가와 문화 교류를 도모함.



교토 목욕탕 예술제의 모습

- 아라시야마와 카츠라가와를 ‘뗏목’으로 연결하는 프로젝트 2014(嵐山と桂川を‘いかだ’でつなぐプロジェクト2014) : 강에 다리가 없었던 시절에는 아라시야마 지역에서 벌채한 나무로 뗏목을 만들어 강을 건너곤 했음. 이를 지역주민과 지역 중·고교생, 외국인 유학생이 함께 재현해 보는 프로젝트임.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벤트로 활용되어 관광 효과를 볼 수 있음.



아라시야마(嵐山)와 카츠라가와(桂川)의 ‘뗏목’ 연결 프로젝트
(목재를 이용한 뗏목 제작 작업, 지역 역사 워크숍, 다양한 목재공예품)

<http://www.city.kyoto.lg.jp/sogo/cmsfiles/contents/0000180/180259/oshirase.pdf>

<http://www.consortium.or.jp/project/seisaku/gakumachi/2014-1>

http://www.consortium.or.jp/wp-content/uploads/1_fushimifukakusa-archive.pdf

http://www.consortium.or.jp/wp-content/uploads/5_arashiyama-artproject.pdf

<http://www.consortium.or.jp/wp-content/uploads/39c457efa2aea03aa74fced19c86b972.pdf>

http://www.consortium.or.jp/wp-content/uploads/16_kyotosentoartfes.pdf

http://www.consortium.or.jp/wp-content/uploads/10_arashiya-kirikomitai2014.pdf

산업·경제

베이징문화재산권 교역센터 문 열었다

중국 베이징市 / 산업·경제

- ‘베이징 문화재산권 교역센터’는 베이징市 문화투자발전그룹, 중국문화산업발전그룹, 베이징동팡문화자산경영회사 등이 출자하여 설립하였으며 2015년 정식으로 개관함.

인터넷 활용해 문화·자본의 매칭에 필요한 폭넓은 플랫폼 제공

- 베이징 문화재산권 교역센터(이하 센터)의 설립은 베이징시의 문화체제 개혁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센터는 향후 인터넷을 통해 문화와 자본의 매칭을 제공하는 폭넓은 플랫폼(Platform)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임.
- 구체적으로는 이 센터가 문화재산권 거래 플랫폼, 문화산업 ‘인터넷 플러스’ 투융자 플랫폼, 문화기업 인큐베이터 플랫폼, 문화재산권 등록위탁관리보호 플랫폼, 문화재산권 정보 플랫폼 등 5가지 기능을 수행할 예정임.
- 센터는 문화무형자산 평가 방식을 혁신하고 문화재산권 거래 → 평가 → 인증 단계를 간편화하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임.



베이징 문화재산권교역센터 개관식

- 문화기업의 기업제 전환, 합병, 인수에 필요한 거래 증명, 등록, 판권보호 등

일반적인 업무 외에 ‘문화+금융+인터넷’ 방식으로 문화혁신창업의 새로운 플랫폼을 추진할 것임.

- 센터는 연내에 문화예술품 자산의 금융화를 시범 추진하고 인터넷을 통한 문화 클라우드 펀딩을 추진하는 한편, 문화기업의 신삼판(新三板) 상장을 위한 절차를 마련할 예정임. 동시에 문화 자문 컨설팅, 자산 평가, 업무 대리, 법률 서비스 등 중개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센터의 경영 이념은 ‘문화와 금융의 매칭, 교역을 통한 가치제고’로 베이징뿐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문화재산권 자원 거래서비스의 종합적이고 표준화된 문화재산권교역센터가 될 것으로 기대함.

北京日报, 2015-05-29

<http://finance.sina.com.cn/roll/20150528/123222289538.shtml>

2015년 고온수당 월 200위안으로 책정

중국 상하이市 / 산업·경제

- 2011년 7월 상하이市는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이 공포한 ‘고온수당 기준조정에 관한 통지(关于调整本市企业高温季节津贴标准的通知)’에 근거해 기업주의 고온수당 지급을 의무화하였음.
- 중국에서는 여름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 도중 열사병이 발생할 때 이를 직업병으로 간주하고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음.



실외작업 근로자에게 청량음료를 지급

섭씨 35도 이상의 실외작업, 33도 이상의 실내작업 땀 고온수당 지급 의무화

- 2015년 상하이시가 발표한 고온수당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상하이시는 기업주가 매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근로자에게 고온수당을 지급할 것을 의무화함.
 - 상하이시가 책정한 2015년 고온수당 지급금액은 매월 200위안(약 3만 6,000 원)으로 2014년 고온수당 지급금액과 같음.
 - 기업주는 35℃ 이상의 실외공간과 33℃ 이상의 실내공간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고온수당을 지급해야 함. 단, 사무실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고온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 기업주는 고온수당과 별도로 근로자에게 청량음료를 지급해야 함. 여기서 주목할 점은 월 고온수당 200위안(약 3만 6,000원)에 청량음료 제공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임. 그러나 청량음료 제공 비용의 세부금액은 따로 규정하지 않음.
- 2012년에 중국 위생부(卫生部), 인력자원화사회보장부(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国家安全生产监督管理总局), 전국총공회(全国总工会) 등이 공동으로 ‘방서강온조치관리판법(防暑降温措施管理办法)’을 발표하였음.
- 각 성·직할시·자치구는 기후특성과 경제적 여건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고 위 규정에 근거하여 고온수당 지급금액, 지급시기, 지급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2015년 중국 지역별 고온수당 지급금액

성·시	고온수당 지급금액	지급시기	지급기간
상하이시	월 200위안(약 3만 6,000원)	6월~9월	4개월
베이징시	실외근로자 : 월 최저 120위안(약 2만 2,000원)	6월~8월	3개월
	실내근로자 : 월 최저 90위안(약 1만 6,000원)		
산둥성	실외근로자 및 고온근로자 : 월 120위안(약 2만 2,000원)	6월~9월	4개월
	비(非)고온근로자 : 월 80위안(약 1만 5,000원)		
푸젠성	월 200 위안(약 2만 2,000원)	5월~9월	5개월
	고온근로자 : 월 225위안(약 4만 1,000원)		
저장성	비(非)고온근로자 : 월 180위안(약 3만 3,000원)	6월~9월	4개월
	일반인 : 월 145위안(약 2만 5,000원)		
	최고기온 33~35℃ : 일 최저 5위안(약 900원)		
충칭시	최고기온 35~37℃ : 일 최저 10위안(약 1,400원)	5월~9월	5개월
	최고기온 37℃ 이상 : 일 최저 15위안(약 2,700원)		
광저우시	실외·고온근로자(33℃ 이상) : 월 150위안(약 2만 7,000원)	6월~10월	5개월

- 그러나 현재의 고온수당은 현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35℃ 이상의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 이러한 현실을 고려한 개선책이 필요함.

<http://www.yjbys.com/wage/236082.html>

http://www.kuaiji.com/news/2794134?utm_source=news&utm_content=zx_right

사회·복지

사회적 약자 종합 지원정책 실행

영국 버밍엄市 / 사회·복지

- 버밍엄市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사회적 약자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 종합 지원정책(Supporting People)’을 시행하고 있음.

복잡한 절차 단순화… 주거·가정문제 관련 필요한 도움 조기에 제공

- 과거에 진행되었던 지원정책은 너무 많은 종류와 복잡한 절차로 서비스를 지원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음. 이 지원정책은 복잡한 절차를 단순화하여 사회적 약자가 지원을 받기까지의 시간을 단축함.



‘사회적 약자 종합 지원정책(Supporting People)’ 로고

- ‘사회적 약자 종합 지원정책’은 주로 사회적 약자의 다양한 가정문제와 주거 관련 문제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음. 사회적 약자가 도움을 받아야 할 시기를 놓쳐 더 큰 위험에 처하기 전에 정부가 이들을 도와줘 더 많은 재정 투입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음.
- ‘사회적 약자 종합 지원정책’의 대상자 유형은 다음과 같음.

버밍엄시가 지정한 사회적 약자

- 늙고 연약한 노인들
-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
- 인지 장애가 있는 사람
- 학습 능력 장애가 있는 사람
- 범죄 유발 가능성이 있는 사람
- 10대 부모와 10대 임신부
- 위험에 처한 아이들
- 부모나 기관으로부터 방치된 아이들
- 도움이 필요한 젊은 싱글 홈리스(Homeless people)
- 도움이 필요한 홈리스 가정들
- 가정폭력으로부터 도망친 사람
- 약물 오·남용자

- 정부가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하는 주거 및 가정문제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음.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되는 주거 및 가정문제 관련 서비스 내용

-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도피처 역할 수행
- 홈리스 관련 문제에 직접 관여
- 사회적 약자가 커뮤니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
- 사회적 약자가 구직활동 관련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 커뮤니티에 필요한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알림
-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보살피는 역할 수행
- 지역 커뮤니티를 회복시키고 이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

- 정부는 사회적 약자가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관련 서비스에 한정해 재정적으로 지원함. 그 외의 서비스는 재정 지원이 없음. 재정 지원이 가능한 서비스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재정 지원이 가능한 주거 관련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 사회적 약자에게 집수리·관리 관련 교육 제공
- 지역 커뮤니티에 필요한 정보 및 운영 관리 서비스 제공
- 사회적 약자에게 필요한 조연이나 상담 등 정서적 지원 서비스 제공
- 사회적 약자가 자신을 돌보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방법을 교육

- 버밍엄시는 ‘사회적 약자 종합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3가지의 주요 지침을 따름.

‘사회적 약자 종합 지원정책’의 주요 지침 내용

- 예방 차원의 서비스 제공에 집중해 이후에 발생할 불필요한 추가비용을 줄임
- 사회적 약자 개개인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그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함
- 지원정책의 계획·실행·점검 등 전 과정에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 모두가 포함되어야 함

- 버밍엄시는 ‘사회적 약자 종합 지원정책’을 위해 다른 분야의 정책기관들과 협업하여 지원정책의 효과를 높였음. ‘사회적 약자 종합 지원정책’과 연관된 영역으로는 건강, 아이들과 가족, 어른들과 지역 커뮤니티,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전략, 국가 정책, 지역 정책과 홈리스 관련 이슈 등이 있음.
- 버밍엄시의 의도대로 정책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정책의 진행상황과 실행결과를 점검함. ‘질적 평가 체계(Quality Assessment Framework, QAF)’를 통해 얼마나 높은 수준으로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서비스 수행 시간과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점검하였음.

지원 서비스 점검 내용

- 얼마나 많은 수혜자가 도움이나 지원 없이도 독립적으로 잘 살고 있는가?
- 얼마나 많은 수혜자가 직장을 구하였는가?
- 얼마나 많은 수혜자가 건강서비스를 등록하였는가?
- 얼마나 많은 수혜자가 원하는 서비스로부터 도움을 받았는가?

<http://www.birmingham.gov.uk/supporting-people>

<http://www.bidsp.org.uk/supporting-people-in-birmingham.html>

www.mycareinbirmingham.org.uk/i-need-help-with/living-at-home/housing-related-support-services.aspx

스마트폰 앱 ‘웨이신’으로 14개 도시형 서비스 제공

중국 상하이市 / 사회·복지

- 상하이市는 2015년 4월 7일부터 시민에게 스마트폰 앱 ‘웨이신(微信·wechat)’으로 14개 항목의 도시형 서비스(城市服務)를 제공하고 있음. 중국의 ‘웨이신’은 우리나라의 ‘카카오톡(Kakao Talk)’이나 ‘라인(Line)’ 같이 중국에서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SNS 플랫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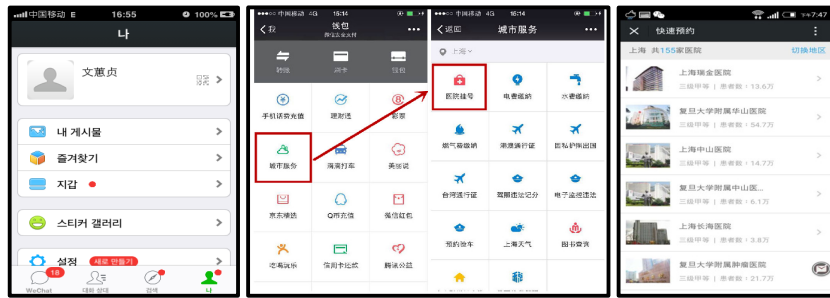


스마트폰 앱 ‘웨이신(微信·wechat)’

날씨정보, 병원진료권 발행, 수도요금 등 공과금 납부 서비스 포함

- 상하이시가 웨이신을 통해 시민에게 제공하는 도시형 서비스 항목은 총 14개 항목임.
 - 시민들은 웨이신을 통해 날씨정보 조회, 병원진료권 발행, 수도요금·전기요금·가스요금 같은 공과금 납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뿐만 아니라 홍콩·마카오·대만 지역을 방문할 때 통행증을 발급받는 절차도 웨이신으로 진행할 수 있음.
 - 도서검색 서비스와 운전면허 별점 기록 조회, 교통법규 위반 기록 조회, 차량검사 예약 절차, 부동산세 납입 조회, 영수증 정보 관리 서비스도 웨이신으로 이용이 가능함.
- 웨이신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 방법은 아래와 같음.
 - ① ‘웨이신’ 앱 실행 후 ‘내 페이지(我)’에서 ‘내 지갑(錢包)’ 클릭

- ② 선택 메뉴 중 ‘도시형 서비스(城市服務)’ 메뉴를 클릭하면 14개 항목의 도시형 서비스 선택이 가능



웨이신을 통한 병원 진료권 발행 서비스

- 또한 웨이신으로 병원 진료를 예약하면 병원을 직접 방문해 접수할 필요가 없고 오랜 시간을 대기하는 등의 수고를 덜 수 있게 됨.
- 병원 진료권 발행 서비스는 자신의 진료뿐만 아니라 가족의 병원 진료도 예약 가능함. 진료권 허위 발행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형 서비스’ 메뉴에 계좌번호를 등록한 사람만 진료권 발행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병원 진료권 발행 서비스 내용(예약번호 발급 - 병 증상 선택 - 병원 상세정보 - 의사 정보 조회)

- 웨이신에는 의사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간단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메뉴도 포함되어 있음. 이 서비스로 의사가 환자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의사는 본인이 관리하는 환자 그룹을 따로 만들어서 퇴원하거나 치료를 마친 환자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 환자는 필요할 때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치의에게 자문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상에서 간단한 진료도 받을 수 있음.
- 웨이신에 있는 개인과 가족 구성원 의료기록을 통해 본인과 가족의 건강 관리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함.

<http://www.shanghai.gov.cn/shanghai/node2314/node2315/node4411/u21ai998088.html>

<http://www.hkqzx.gov.cn/StaticArticle/150409/155650998.shtml>

‘편부모 가정 독립거주 지원’ 신개념 모성센터 개설

프랑스 파리市 / 사회·복지

- 2015년 6월 파리市는 파리19區에 새로운 형태의 모성보호센터인 ‘세잠(Sésame) 모성센터’를 개설하였음.



세잠(Sésame) 모성센터

- 파리시 가구 중 28% 이상이 편부모 가정으로, 편부모 가정의 86%가 아이를 키우며 홀로 사는 여성임. 파리시는 심리·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여있는 여성과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에게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음.
- ESSOR 협회가 위탁 운영하는 ‘세잠 모성센터’는 파리시에 있는 9개의 모성센터 중 하나로, 파리19구의 아르망 카렐(Armand Carrel) 거리에 있음. 이 센터의 입주대상자는 7개월 이상의 젊은 임산부, 3세 미만의 아동과 엄마들임. 센터의 역할은 이들의 물질적인 어려움과 심리적 고충을 해결해 주는 것임.

센터에 입주하지 않고 독립된 30여채 아파트에 따로 거주 가능

- 이번에 신설된 ‘세잠 모성센터’는 기존 센터처럼 센터 내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30여 채 아파트에 분산 거주하도록 한다는 점이 특징임.
- 이러한 독립거주 방식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모자보호 조례(Action Départementale Envers les Mères Isolées avec Enfant, ADEMIE)’의 내용에 근거해 수용되었음.

편부모 가정의 강력한 요구와 기존센터들이 상당히 노후화되었다는 점도 여기에 한몫 하였음.

- ‘세잠 모성센터’는 서비스 대상자와 긴밀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위해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이 각 가정을 방문하게 함. 대상자들이 모든 모성보호 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자녀의 성장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육아와 교육 등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
- 이 센터는 젊은 미혼모들이 출산 이후로 가장 중요한 시기인 3년 동안 자립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지원해 주고, 공동 수유공간과 전문가에 의한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함.

<http://www.paris.fr/actualites/le-centre-sesame-un-accueil-pour-les-femmes-enceintes-et-les-meres-isolees-2193>

행재정·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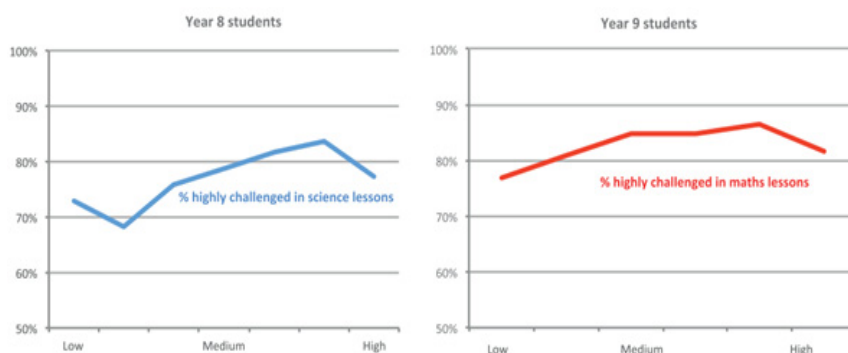
교사 역량 강화 지원프로그램 본격 시행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 행재정·교육

- 뉴사우스웨일스주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해 다방면에서 교육개혁정책을 시행해 왔음. 최근 주정부의 교육 개혁은 교사의 교육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2013년 주정부 교육부는 ‘영감을 주는 교육(Great Teaching, Inspired Learning)’으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서 교사가 가지는 자질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제시하였음. 이 실행계획에 기초하여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인 ‘양질의 교육이 성공적인 학생을 만든다(Quality Teaching, Successful Students, 이하 양질 교육 프로그램)’를 도입해 2015년 하반기 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함.
- 뉴사우스웨일스주의 학업 성취도는 국내 평균보다 높지만, 국제 평가에서 여전히 향상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전국 일제고사(National Assessment Program-Literacy and Numeracy, NAPLAN)의 성적 동향에 따르면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최근 학업성취도가 제자리걸음 상태로 학생 5명 중의 1명은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학생들의 낮은 학업 성취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지만, 주정부는 학생의 학업 성취 고양에 필요한 학교와 교사의 헌신과 개입이 부족하다는 점을 주의 깊게 보고 있음. 교사의 역량 강화와 이를 통한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 그 해결방법을 찾고 있음.
 - 아울러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에 주목하고, 학부모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공립학교에 집중적인 투자를하기로 결정함.
- 이번 양질 교육 프로그램 설계와 시행에는 주정부 산하 교육통계평가원(Centre for

Education Statistics and Evaluation)에서 발행한 연구(What works best: Evidence-based practices to help improve student performance)가 결정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됨. 이 연구는 학생들의 학문적 발달을 자극하는 교사들의 존재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주지시키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주정부 관할 학생의 약 20%는 학교 교육의 난이도가 너무 낮거나 수업방식이 지루하여 학교 교육이 학생들의 지적 도전을 효과적으로 자극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함. 이는 특히 학업 성취도가 높거나 낮은 학생들에게 발생하고 있는 현상임. 결과적으로 주정부 학교들이 학생들의 학업 잠재력을 충분히 발달시키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함을 반영함.



뉴사우스웨일즈주의 과학(좌)과 수학(우) 과목 학생 수준별 학업 흥미도

- 이 보고서는 학교 교육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 근거하여 교사 간 협력과 상호 모니터링, 그리고 이에 기초한 ‘성찰적 실행(reflective practice) 교습 방식’이 교육의 질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방안임을 제시함.
- 또한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교사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근무 경력 내내 지속적인 직무 연수(professional development)를 통해 탄생한다는 점을 역설함. 구체적으로 교사 평가, 공개 수업을 통한 상호 피드백, 그리고 학교 외부의 교육 전문기관이나 외부 교사 모임으로부터의 비판적 검증(critical validation) 등을 실행 방안으로 제시함.

주정부 2,240억원 투입… 학교내 최고교사 선정해 지도교사로 활용

- 이 보고서에 기초한 양질 교육 프로그램은 최근 주정부 학업성취도 향상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개혁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 양질 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경험 이 풍부하고 역량을 갖춘 교사의 전문능력을 다른 교사들과 공유하는 데에 있음. 이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 주정부는 2억 2,400만 호주달러(약 2,24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함. 이 예산은 학교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에 수반되는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용도로 사용됨.
- 이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은 각 학교에서 최고의 교사들을 선정해 다른 교사들의 지도교사(mentor)나 조연자(coach)로 활용하게 하는 것임. 프로그램 실행 방식은 학교와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학교장은 학교 상황에 기초하여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음.
- 이 프로그램은 세부적으로 교사 간의 협력, 멘토링, 교사 지원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① 교사 간 협력 : 교사 간의 공동 교과과정 개발, 상호 수업 관찰, 학생 수행 능력 공공 분석 및 평가 방법 공동 개발 등
 - ② 멘토링 : 수업 방식, 교과 과정 계획 및 학생 수행능력 평가, 교실 운영에 대한 지도교사의 건설적인 피드백 제공 등
 - ③ 교사 지원 : 참여 교사들에 대한 인증(creditation), 교사 수행 능력 개발 기본 틀(Performance and Development Framework) 개발 등
- 양질 교육 프로그램의 대상은 주정부 관할의 모든 공립 초등학교로 신입 교사뿐만 아니라 교사경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함. 이 프로그램은 2015년 2학기부터 시작되어 향후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임.
- 2015년에는 약 25%의 학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2016년에는 50%, 2017년부터는 모든 학교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됨. 프로그램이 완전하게 정착되어 시행

된다면 주정부 전체적으로 1천 명 이상의 교사가 지도교사로 선정되어 학교 교육의 질적 제고를 책임지게 됨. 각 학교는 프로그램 참여 및 세부 진행 상황을 연간 보고서 (Annual School Report)로 공개해야 함.

<https://www.nsw.gov.au/media-releases-premier/investing-quality-teaching-improving-student-results>

http://www.cese.nsw.gov.au/images/stories/PDF/what_works_best.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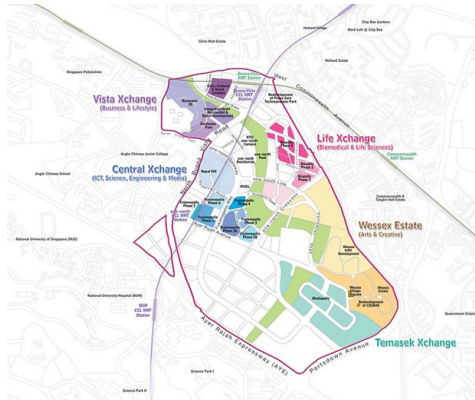
도시교통

차세대 교통수단 ‘무인택시’ 운행 추진

싱가포르市 / 도시교통

- 싱가포르-MIT 공동 연구 기술(Singapore-MIT Alliance for Research and Technology, SMART)팀은 주문형 무인택시(on-demand driverless taxi)와 자율주행 공유차량(shared autonomous vehicle)의 도로운행 테스트를 시행할 예정임. 이 테스트는 도시교통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도시교통 부문의 조사관인 에밀리오 프레졸리(Emilio Frazzoli)는 이 테스트에서 “이 기술을 통해 카셰어링(car-sharing)이 자가용만큼 편할 뿐 아니라 대중교통만큼 광범위하게 유지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함.

첨단산업기지 원노스지역서 시범운행...1년 내 도시 전체로 확대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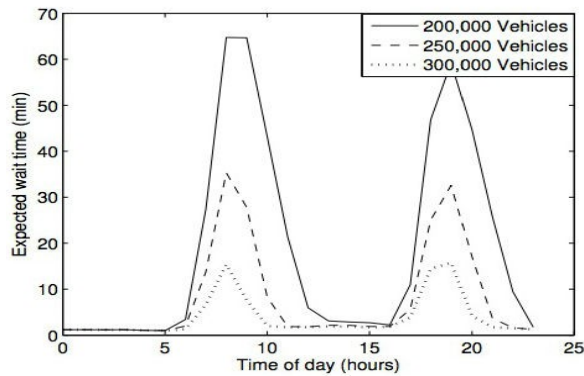


무인택시 테스트를 시행할 One-north 지역

- SMART팀의 기본적인 구상은 스마트폰을 통한 무인 자동차 탑승 예약임.
- 싱가포르의 생명공학, 디지털 미디어, 첨단기술기업 등이 밀집해 있는 대규모 산업지구 원노스(One-north) 지역에서 무인택시 테스트를 6개월간 시작할

예정임. 원노스 지역 근로자에 한정해 무인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첫 탑승은 무료임.

- 담당자는 원노스 지역의 무인택시 테스트를 싱가포르 당국이 허가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음. 싱가포르 정부는 1년 내로 무인택시를 도시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SMART팀은 이미 2014년 가을에 싱가포르의 일본·중국 공원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인 자동차 탑승 체험 기회를 제공한 적이 있음.
- 당시 테스트에서 나타난 문제 중 하나는 서비스 신청자가 예약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음. 실제로 테스트 당시 많은 예약신청자가 있어 정확한 시간에 신청자가 예약장소에 나타나지 않으면 바로 다음 대기자에게 넘어가는 식으로 이루어졌음. 이 때문에 많은 항의가 있었음. 원노스 지역에서 진행될 테스트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서비스 문제를 개선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음.
- SMART팀은 프로그램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무인택시로 인한 사고를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과의 충돌도 미연에 방지하는 것까지 포함해 고민하고 있음.
- 관련 연구 논문에 의하면 공유 자율택시 시스템(shared autonomous system)은 싱가포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프레줄리와 연구진은 혼잡시간대에 15분 이상 대기자가 발생하지 않게 한다는 가정하에서 싱가포르 전체를 커버할 택시(robotaxis)의 수를 30만 대로 예상하였음. 이는 2011년 주행 중인 승용차 78만 대의 절반보다 적은 숫자임.
- 이러한 변화는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아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주차공간 같은 부수적으로 필요한 공간이 적어지면서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공원과 같은 자연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무인택시 운행 대수에 따른 시간대별 대기시간 예상도

- 싱가포르 정부는 무인차량 공유네트워크(shared driverless vehicle network)로 인한 광범위한 사회적 혜택을 인정함. 2014년 교통청(Ministry of Transport)의 조직 위원회는 무인차량 공유네트워크 형성으로 “싱가포르가 더 지속가능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것”이라고 밝힘.
- 정부의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는 향후 무인 자동차 운행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 그리고 테스트가 성공하면 무인 자동차 운행에 대한 사회적 지지 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기반으로 미래에 대한 전략적 계획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http://www.citylab.com/tech/2015/06/singapore-is-already-planning-for-a-future-of-driverless-taxis/396707/>

<http://www.electricvehiclesresearch.com/articles/7058/first-driverless-vehicles-for-public-in-singapore-are-electric>

정보·기타

재활용 쓰레기통 활용해 무선인터넷 무료 공급

미국 뉴욕市 / 정보·기타

- 폐기물 관리 전문업체인 빅벨리(Bigbelly)社は 뉴욕市에 배치된 재활용 쓰레기통을 활용해 시민에게 무선인터넷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뉴욕시에 설치된 재활용 쓰레기통 ‘스마트(smart)’

- 뉴욕 맨해튼에는 빅벨리社の 재활용 쓰레기통인 ‘스마트(smart)’가 170개 이상 설치되어 있음. 빅벨리社は 무선인터넷(Wi-Fi) 장치를 장착한 쓰레기통을 거리 곳곳에 설치해 핫스팟(Hot Spot, 주변의 통신이 가능한 구역)으로 활용하고자 함.
 - 또한 재활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악취가 심하게 나거나 쓰레기로 꽉 차면 쓰레기통 내부에 있는 칩이 이를 감지하여 청소부에게 알려 줌.
- 2014년 겨울 빅벨리社は 뉴욕의 비영리단체인 ‘다운타운 얼라이언스(Downtown Alliance)’와 협력하여 2개의 재활용 쓰레기통에 무선인터넷 공급 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테스트하였음. 테스트 결과 무선인터넷 장치가 쓰레기통 안에 설치되어 있어도 신호 감도가 나빠지는 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재활용 쓰레기통은 시민뿐만 아니라 정부에게도 유용함. 재활용 쓰레기통은 정부가 폐기물을 관리하거나 공공서비스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

터를 수집해서 정부에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함.

태양광 사용해 환경친화적... 공중전화기 1만여대도 활용할 계획

- 빅벨리사의 글로벌 마케팅 부사장인 레일라 딜런(Leila Dillon)은 “재활용 쓰레기통은 태양광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환경친화적이고, 뉴욕 시내 거리에 기술 플랫폼을 설치하는 새로운 시작점”이라고 밝힘.
- 빅벨리사는 연내에 더 많은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재활용 쓰레기통뿐 아니라 약 1만 대의 공중전화기를 무선인터넷 공유 링크(link)나 허브(hub)로 활용할 계획임.
- 현재 뉴욕시에서 미래형 공중전화 및 무선인터넷 허브로 840만 명의 뉴욕 시민과 수백만 명의 관광객에게 무선인터넷뿐 아니라 휴대전화 충전, 무료 국내 전화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뉴욕시에 설치될 공중전화 및 무선인터넷 공유시설

<http://www.citylab.com/navigator/2015/07/new-york-city-wi-fi-trash-cans/398258/>

<http://www.citylab.com/tech/2014/11/rip-pay-phones-hello-links/382857/>